

형제간 싸움에 이르는 행동심리

20240459 권초연



9~10살 형제 자주 싸우며 부모님께 이른다.

매일매일 서로의 잘못을 이르기만 하는 형제
어떻게 교육해야하는가?

형제가 서로 자주 이르는 이유

01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

02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

03 부모님께 이르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04 어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함

05 형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움

06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

이르는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POINT. 01

단순한 고자질이 아님

POINT. 02

아이가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

POINT. 03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일 수 있음

교사나 보호자 같은 권위자의 판단에 강하게 의존

POINT. 04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

부모의 올바른 지도 방법

1) 이르는 행동과 도움 요청 구분하기

*즉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
안전 문제가 있을 때
신체적 폭력이 있을 때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줄 상황
사소한 말다툼
장난감, 물건 문제
의견 충돌

아이의 감정 공감하기

2) 스스로 해결할 기회 주기

"그럴 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형한테 직접 말해 봤어?"
"엄마가 전달해 줄까?"

직접 선택하며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평소 연습하기

형제 갈등 상황을 가정하여 연습한다.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네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칭찬하기

부모의 올바른 지도 방법

4) 아이가 다시 이른다면

훈내지 말고 이유를 물어본다.

"왜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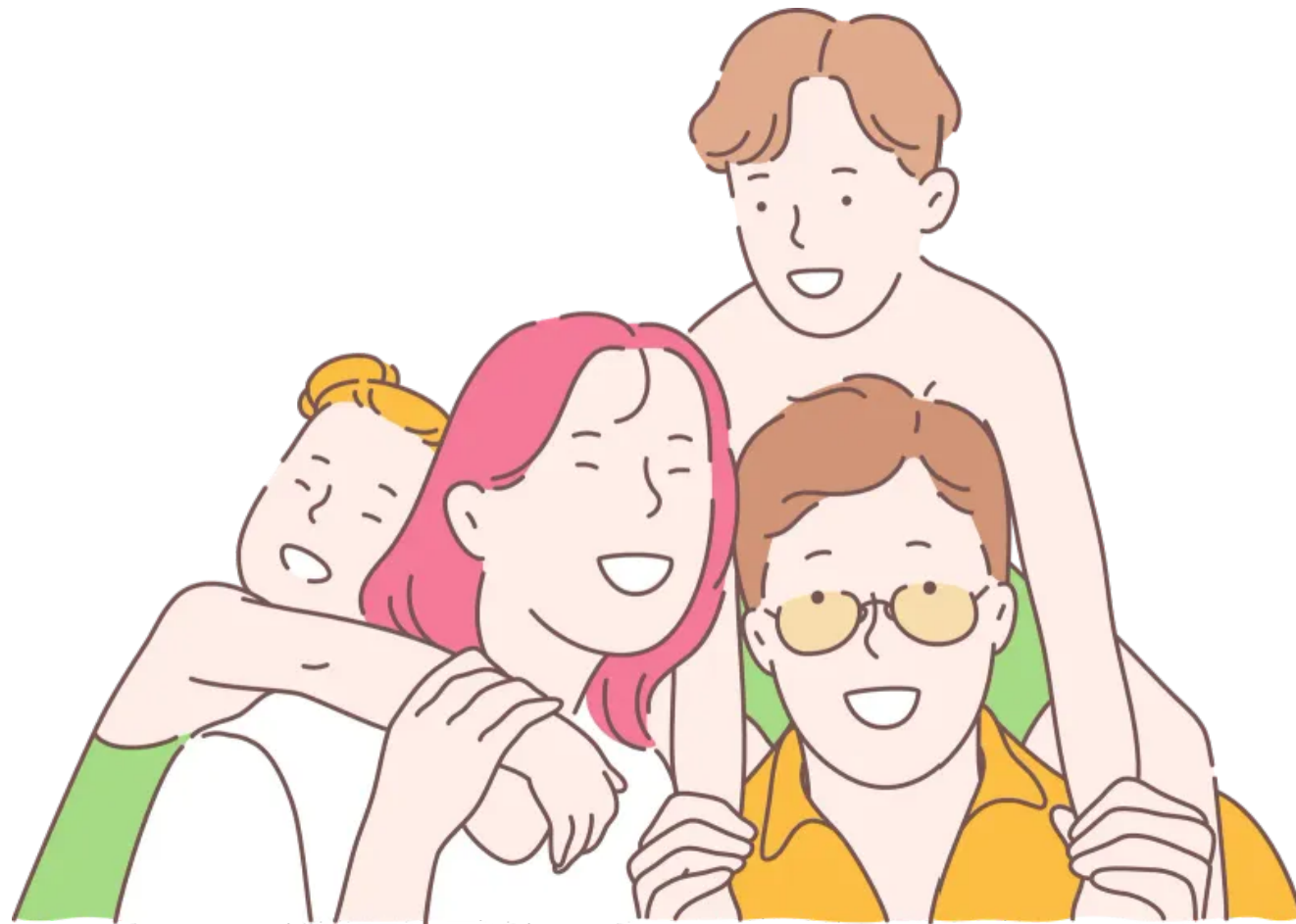
"누가 위험한 상황이야?"

"형한테 먼저 말해 봤어?"

"지금 엄마가 꼭 필요한 상황이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아이는 부모에게 말해야 하는 상황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내적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 한마디



KEY POINTS

저학년의 이르는 미숙한 도움 요청이기에
이르기를 차단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고 내적 기준을 만들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